

'85第1回臨時總會開催



〈사진上〉 김성배 건설부장관의 치사. 유상열 건설부 주택국장이 대독하고 있다

〈사진下〉 오웅석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본회 85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3월 29일 오후 2시 재적대의원 1백33명중 1백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吳雄錫 회장의 개회로 시작된 임시총회는 金聖培 건설부장관의 치사(柳常悅 주택국장 대독)를 비롯, 일본건축사회연

합회 太田和夫 회장의 축사와 한국건축가협회 羅相紀 회장의 축사로 서막이 장식되었으며 추대회원 추대, 건축사회관 건립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회관건립자재 찬조업체에 대한 감사패 수여의 하이라이트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제19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보고, 柳根계 감사의 일반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와 李康植 감사의 회계감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부의안전상정이 있는 다음 오후 4시18분 정회하였다.

오후 4시35분 속개된 회의에서는 부의안전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제2호

太田和夫 會長 祝辭

오늘 아침 동경나리다공항을 떠나 2시간만에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오는 동안 도시계획 쪽의 큰 발전에 시선을 놓을 수 없었고 또 여러 건축사 회원들이 많은 작품을 남기고 활발히 활동하시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약 50년전 서울에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잘 기억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의 건축사 여러분이 이렇게 작품전시회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대단히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건축사회는 수는 상당히 많지만 이렇게 단합적이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향해서 건축제도나 여러가지 문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굉장히 걱정을 하지만 한국은 우리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건축제도를 바꾸어서 일본건축사 자격제도를 민간주도하에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건축계 전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한·일간의 교류를 얘기했었지만 10여년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조인식을 갖고 올림픽 시설도 구경하고 여러가지 많은 것을 보고 돌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日本建築士會聯合會 太田和夫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일부 수정의 결을 제외하고는 <제 1 호 의안 1984년도 수지결산 승인>, <제 3 호 의안 윤리 위원회규정개정(안 승인)>, <제 4 호 의안 1985년도 일반회계개정수지예산(안 승인)>, <제 5 호 의안 1985년도 제 1 차 특별회계추가개정수지예산(안 승인)>이모

두 원안대로 의결 승인되었다.

부의안건 처리에 뒤이어 기타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오후 6시 50분, 만세삼창을 끝으로 85년도 제 1 회 임시총회의 막이 내렸다.

한편 이번 제 1 회 임시총회 석상에서

추대된 추대회원과 건축사회관의 준공과 관련하여 공모패와 감사패를 받은 분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上〉 나상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사진 下〉 김지태 전회장 (오른쪽) 이 오웅석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推戴會員

- 제 133호 宋寬植 서울·삼미종합건축사무소
- 제 134호 李伯吉 서울·피아종합기술공사
- 제 135호 宋旼求 서울·도성건축연구소
- 제 136호 林級周 서울·임급주건축사무소
- 제 137호 金枝泰 서울·삼아건축연구소
- 제 138호 崔聖德 대구·도심거림건축설계사무소
- 제 139호 金鳳善 안양·유일종합건축사무소
- 제 140호 金載源 수원·한도건축연구소
- 제 141호 曹正煥 대전·조정환·강우식건축연구소
- 제 142호 申在益 순천·성주건축설계사무소
- 제 143호 李文馥 상주·남일건축설계사무소
- 제 144호 金再炫 진주·삼성건축설계사무소

羅相紀 會長 祝辭

건설부장관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유상열 주택국장님, 오웅석 회장님, 멀리 일본에서 오신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오다 회장님, 그리고 역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본인은 이제 우리 건축사들의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업적이 하나 하나 역사속에 기록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출길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과도기 40여년전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언제 우리가 이런 회관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2천3백명이 넘는 건축사들이 한국 땅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불과 1백여명도 안되는 서울의 건축사들이 6.25 동란의 폐허를 복구함으로써 건축경기가 활발해 지도록 부상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앞으로도 그만큼 건축사들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라고 하

功勞牌 및 感謝牌

〈공로패〉

- 제 671호 金枝泰 삼아건축연구소 제 14대 회장, 건축사회관 추진에 대한 공로
- 제 672호 金亨仁 세한종합건축사무소 공사 감리에 대한 공로
- 제 673호 金一榮 동신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회관 건립 전담위원

- 제674호 尹鳳源 건축연구소 원건사
건축사회관 건립 전담위원
- 제675호 李永熙 회림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회관 건립 전담위원
- 제676호 李用夏 신건축기술연구소
건축사회관 건립 전담위원
- 제677호 朴容漢 성아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회관 건립 전담위원
- 제678호 李春相 동화신양건축연구소
건축사회관 건립 전담위원
- 제679호 任仁赫 본회 사무처장
건축사회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
- 제680호 이재선 신축공사 현장감독관
- 제681호 李鍾永 본회 총무부 관리주임

〈감 사 패〉

- 제682호 宋光燮 환건축연구소
건축사회관 설계
- 제683호 尹玆老 (株) 三湖 대표이사
건축사회관 건립공사
- 제684호 張命天 (주) 삼호
신축공사 현장소장
- 제685호 최영중 한국유리공업(주) 대표
이사·자재찬조
- 제686호 박가경 (주) 금강 대표이사
자재찬조
- 제687호 金正鉉 (주) 한국텍스코트
대표이사·자재찬조
- 제688호 金永驥 삼영요업(주) 대표이사
자재찬조
- 제689호 李永馥 동서산업(주) 대표이사
자재찬조
- 제690호 宋基頂 제일산업 대표
자재찬조

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얘기할 때 흔히 경제전문가들은 하물자동차의 수를 비교합니다. 대략 일본과 서독같은 경제대국들의 비교수치는 50대 50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하물자동차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경제부문이 다 함께 발전했다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특히 건축방면에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컸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1급 건축사가 18만명이나 있다 합니다. 2급까지 합하면 6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 10만명에서 18만명 미만이 개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분들이 생활을 영위하기조차도 급급한 처지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2천3백명이 넘는 오늘의 우리 건축사들은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 가진 노력을 다하며 걸어가고 있는 오늘의 주변여건을 고려하면서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는 수 많은 젊은 건축가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과제에 대해 심각한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출신의 건축과 학도만 해도 수천명에 이르고 전문대학 학도까지 합치면 만여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건축과 출신 인재들의 진로를 우리가 개척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폭이 지금에 비해서 더욱 커져야 되겠고 우리 건축인도 스스로 자질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질을 높인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자질을 높이는 힘들겠고 협회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5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자질을 높일 수가 있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고급주택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 건축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UIA 총회에서 알게된 일입니다만, 40개 회원국 중에서 19위라는 상당한 수준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여러 나라 있지만 건축사 30명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는 나라가 수십개국에 달합니다.

19위라는 놀라운 수준의 선진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그만큼 양 어깨가 무거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 협조하고 돕는 정신을 길러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지고 있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여건이 이 땅에 찬란한 건축문화를 꽃피워 내려는 창작활동에 알맞게 조성되어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건축문화 창달의 선구자가 되어 건축문화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사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건투와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